

The Longitudinal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Change and Its Influencing Factors

Chiwon Choi*, Hyung-Hee Kim*, Hwieseo Park**

*Graduate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Graduate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rofesso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som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adolescent's self-esteem through analyzing longitudinally the effects of parental attitude, peer relationship,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hool learning activity, life-goal on adolescent's self-esteem by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 Analytical data was obtained from the KYCPS. The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the change model of adolescent's self_esteem turned out to be a leaner model in which the change rate and intercept were significant. Second, time dependent variables influence on adolescent's self_esteem meaningfully. Third, time dependent variables influence on adolescent's self_esteem changes significantly. This study proposed some policy implications basing on these findings.

▶ **Key words:** parental attitude, peer relationship,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hool learning activity, life_goal, adolescent's self_esteem

[요 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및 삶의 내적목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자료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4 패널 4차년에서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청소년 자아존중감 변화모형은 실증자료에 더 적합한 선형모형을 최종모델로 선정하였으며 초기치와 변화율 및 각각의 분산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의존적 변수는 교사관계 4차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독립적인 변수들은 모두 초기치와 변화율 및 각각의 변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주제어:**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삶의 목표, 청소년 자아존중감

-
- First Author: Chiwon Choi, Corresponding Author: Hwieseo Park
 - *Chiwon Choi (7won76@naver.com),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Hyung-Hee Kim (ua2610@naver.com),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Hwieseo Park (hspark@chosun.ac.k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20. 08. 10, Revised: 2020. 08. 26, Accepted: 2020. 09. 10.

I. Introduction

성장 또는 성숙의 과도기적 의미를 내포하는 청소년기는 사회구성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여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행복한 삶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과업과 관련한 다양한 발달적 형태 및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관계 및 주위 환경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양한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1].

청소년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모나 또래, 교사 등 중요한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기초한 상호작용과 현실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 및 개인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며 사회적 행동의 원인인 동시에 사회적 행동으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는 발달 산물로 보고되고 있다[2].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발달과정의 모든 측면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중요한 영향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발달과 적응의 원인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특정 시점에서 형성되기보다는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며, 평생 동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3], 이전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추세를 종단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삶의 내적목표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추세는 어떠한가? 개인별로 각기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및 삶의 내적목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Theoretical Background

1. Adolescent's 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자아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지와 관련한 개념으로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

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이며, 자신의 능력 및 특성에 관한 감정적 평가를 의미한다[4]. 이러한 특성과 태도는 주변의 평가에 관한 자기의식의 태도로 바라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견해와 태도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견해와 태도가 증가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또한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문제행동을 늘어나게 하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높인다[4].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다양한 행동의 방향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지표이고, 인간 발달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 안녕 및 사회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연구는 대부분 횡단 연구이지만 종단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정익중[6]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박희서[5]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평균이 유의하게 나타나 청소년 개인들 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 추세에 관한 연구들은 무변화, 상승, 하강 등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7]. 우선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무변화 모형은 청소년기가 급격한 변화를 맞는 전환기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상승모형에서는 대다수 청소년들이 부모들을 거부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율성의 증가, 사회적 기술의 향상 및 성숙을 경험하기에 더 높은 자아존중감에 이르게 된다고 가정한다[8]. 자존중감의 하강모형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순응하지 않고 급격한 정체성의 변화로 인한 고통, 인지능력의 증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전환과 관계된 사회 맥락적 변화들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8].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수준은 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개인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율도 각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추세와 관련하여 개인적 특성, 부모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성숙, 현실 생활 속에서의 자율성의 증가, 사회적 기술의 향상, 인지능력의 증가 및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 등은 청소년마다 개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5]. 이러한 청소년의 삶에서의 경험적 차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변화 추세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각기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2. Predictors of Self-Esteem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생활 속에서의 경험 및 개인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대[2].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행태의 경향성과 반응양식을 의미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대[5].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합리적인 행동기준을 제공하며,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 되며, 생활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증진의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의 학대, 비밀관성 및 과잉기대 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대[5].

청소년들은 가족관계와는 달리 동등한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화되며, 이러한 또래관계를 통한 친밀한 관계형성은 서로에 대한 지지와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9]. 또래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은 부모와 학교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로 보고하고 있어[10],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일상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며 교사와 생활 및 교류가 증가하는 청소년기,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11]. 특히 학생들이 학업 및 학교생활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존중, 수용적 태도 및 친밀한 관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교사관계는 학교 및 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대[11].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잘되며 학생들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학교에서의 활동 및 적응과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 정서 발달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특히 학습활동은 자아존중감의 기초가 되는 자아개념의 구성과 높은 연관을 보인다[13]. 학업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긍정적 학습활동은 학교생활을 통해 형성되길 바라는 궁극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14].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 학습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긍정적 학습활동의 청소년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5].

자기실현과 같은 개인적 성장 및 공동체 참여 등의 사회적 공헌을 지향하는 삶의 내적목표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

장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삶의 내적목표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적 목표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16]. 선행연구에서 삶의 내적목표는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및 정체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특히 내적목표는 한 개인이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동기가 되며,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높이고,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대[18].

더불어, 기존연구에서 건강은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고[19], 성별차이와 관련한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관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20].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건강, 성별 등은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및 삶의 내적목표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Research Design

1. Setting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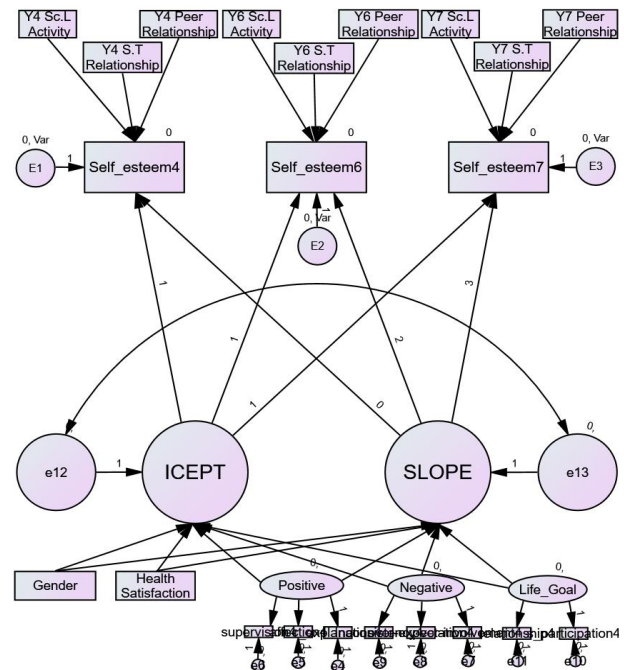


Fig. 1. Self-Esteem Change Model

2. Data Collection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패널의 4년차부터 7년차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KCYPS는 2010~2016년까지 초1, 초4, 중1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단기간 단 자료이다. 이 자료는 전국 중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78개 중학교에서 총 2,716명을 표본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선정된 패널자료 가운데서 선별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1,836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3. Measuring the Variables

3.1. Adolescent's 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4·6·7차년도에서 청소년이 자아를 긍정적인 존재로 인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필요 문항은 역코딩하여 척도의 총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4차년 .84, 6차년 .85 7차년 .87이며 측정변수는 문항의 평균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3.2 Predictors of Self-Esteem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등을 긍정적 양육태도로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등을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리커트 4점 척도의 총합이 높을수록 각각의 변수에 해당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들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긍정적 양육태도 .75, 부정적 양육태도 .79 이다.

둘째, 또래관계는 의사소통, 신뢰, 소외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리커트 4점 척도의 총합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의사소통 .87 신뢰 .84 소외 .78이다.

셋째, 교사관계는 리커트 4점 척도의 총합이 높을수록 원만한 교사관계를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85이다.

넷째, 학습활동은 5문항의 리커트 4점 척도의 총합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이 우수한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80이다.

다섯째, 삶의 내적목표는 청소년 자신이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나타내는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척도의 총합이 높을수록 삶의 내적목표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8이다.

여섯째, 성별은 여자 0, 남자 1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건강만족도는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1)”에서 “매우 건강하다(4)”까지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은 척도의 총합이 높을수록 건강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3 Analysis Method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추세와 개인 간의 차이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GM)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둘째, 개인 내 변화 및 그 변화에 유의한 개인차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후 종속변수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시간 의존적변수와 시간 독립적변수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들을 투입해 자아존중감의 변화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간 의존적 변수가 그 해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다.

IV. Empirical Analysis

1. Analytical Results of Latent Growth Model for Self-Esteem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한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 비교분석 결과는 <Table 1>와 같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의 선형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실증자료에 더 적합한 선형모형을 최종모델로 선정하였다.

Table 1. Adolescent Self_Esteem Structural Model Fit

Model	$\chi^2(df)$	P	CFI	TLI	RMSEA
Monony model	132.652(6)	.000	.897	.949	.107
Linear model	4.577(3)	.206	.999	.999	.017

<Table 2>결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1차년도 초기치 평균이 3.168로 변량과 함께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학생 간의 개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화율 -.036은 한단위 시간의 증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036만큼 감소함을 의미한다. 각각의 유의미한 분산 결과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초기치와 선형변화율과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변화율의 변화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Table 2. Growth Curve Parameters for Model of Adolescent Self_Esteem

	Mean	Variance
Intercept	3.168(.012)***	.159(.009)***
Slope	-.036(.004)***	.009(.001)***
Intercept-Slope correlation	-.403***	

2.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on Self-esteem Changes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모형에 변인들을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Table 3>의 최종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6658.454^{***}$, $df=114$, $CFI=.961$, $TLI=.921$, $RMSEA=.051$ 로 나타나 전체적인 모형적합도 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3. Verifying the Research Model

Model	$\chi^2(df)$	P	CFI	TLI	RMSEA
Research model	658.454 (114)	.000	.961	.921	.051

시간의존적인 변수를 투입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Growth Curve Parameter estimates of Time variant variables for Adolescent self_esteem

Path	β
Self_esteem4 <- School Learning Activity	.148***
Self_esteem6 <- School Learning Activity	.185***
Self_esteem7 <- school Learning Activity	.172***
Self_esteem4 <- Student-Teacher Relationship	.031
Self_esteem6 <- Student-Teacher Relationship	.066**
Self_esteem7 <- Student-Teacher Relationship	.114***
Self_esteem4 <- Peer Relationship	.238***
Self_esteem6 <- Peer Relationship	.312***
Self_esteem7 <- Peer Relationship	.34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시간의존적인 변수와의 관계성 결과는 교사관계 4차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고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습활동, 교사관계, 또래관계가 높거나 긍정적일수록 해당년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중학교부터의 학습활동, 교사관계, 또래관계가 긍정적으로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사관계와 또래관계는 학령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낯선 환경에서의 학습활동이 보이는

변화에 비해 새로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이며 활발한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지속적으로 더 큰 긍정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독립적인 변수들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태도, 삶의 내적목표, 성별 및 건강만족도 모두 자아존중감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양육태도, 삶의 내적목표 및 건강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율에는 높은 초기값에 비하여 더디게 증가하게 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하여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에는 부(-)의 방향으로, 변화율에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은 남학생일 때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Table 5. Growth Curve Parameter estimates of Time invariant variables for Adolescent self_esteem

Path	β
Icept <- Positive	.306***
Slope <- Positive	-.200*
Icept <- Negative	-.187***
Slope <- Negative	.216**
Icept <- Life_Goal	.263***
Slope <- Life_Goal	-.440***
Icept <- Gender	.201***
Slope <- Gender	-.127*
Icept <- Health_Satisfaction	.202***
Slope <- Health_Satisfaction	-.148**

V. Discussion and Conclusion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사 이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추세 및 독립변수들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LGM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독립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초기 값과 변화율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자아존중감의 변화추세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8],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의 청소년 자아존중감 개입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유의한 변량은

청소년 각기 개인차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개인 간의 차이는 환경,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자아존중감 연구와 개입에 있어서 개별적인 특성은 세심히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활동,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 등의 시간 의존적 변수들은 해당년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능동적인 학습활동 참여와 긍정적인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의 형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입시라는 특수성과 일상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또래와 교사관계 및 학습활동의 중요성이 자아존중감과 상당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년도의 학습활동,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가 바람직하게 형성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더불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학습활동,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를 비교하였을 때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순으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더 높았다. 특히 바람직한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주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체계보다는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형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서, 긍정적인 교사관계의 형성에는 학생의 태도나 의견에 대해 평가나 비판하지 않고 이해를 위한 능동적인 교류와 소통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훈련과 지도를 통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회피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정보의 습득은 또래관계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시간 독립적 요인인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태도, 삶의 내적목표, 성별 및 건강만족도는 초기 값에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며 삶의 내적목표가 높고 건강만족도가 큰 남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 초기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독립적 요인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양육태도, 삶의 내적목표, 건강만족도의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 초기 값에 반하여 변화율은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증가추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수록 자아존중감

의 초기 값은 낮게 나타났지만 변화율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의 증가추세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방편으로, 학년이 올라가도 자아존중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인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태도, 삶의 내적목표, 성별 및 건강만족도를 포함한 개입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관심을 기울이며, 좋아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주고, 지치고 힘들어 할 때 함께하며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긍정적 양육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5]. 또한, 과잉 기대나 간섭, 비밀관적인 태도의 부정적 양육태도들에 관해서는 부모가 절제력을 발휘하고 부모 스스로의 자아성찰을 통한 교정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부모의 태도 변화를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정부와 유관기관의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내적 삶의 목표는 청소년의 태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내적 삶의 목표의 형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할 주요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내적 삶의 목표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경쟁위주의 교육 방식보다 자아의 성장, 공동체의 기여,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인성을 성숙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은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더불어 이미 건강상의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의 경우, 심리사회적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 및 신체적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개입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입은 자아존중감에 취약성을 나타낸 여학생을 위한 맞춤형 자아존중감 향상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중1에서 고1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 자아존중감 변화양상과 영향요인들과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횡단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 본인의 인식과 평가에만 의존한 특정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자

료의 다양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세분화되지 않은 척도의 한계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결과의 도출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이 미취학 아동에서 성인초기까지 어떠한지,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다른 요인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Cairns, E., McWhirter, L., Duffy, U., & Barry, R. The stability of self-concept in late adolescence: Gender and situational effe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9), 937-944. 1990.
- [2] Mead, George Herbert. *Mind, self and society*. Vol. 11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34.B.
- [3] Brenden, N. The power of self-esteem. Deerfield Beach Florida, Health communication. In G. W. Brwon, A. Bifulco, & Andrew. *Self-esteem and Depression: III. Aetiological Issu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1992), Vol.25, pp.235-243. 1990.
- [4]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5] Park Hee-seo. An end-to-end study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 self-esteem - Application of potential growth model. *Korean Computer Information Science Epistle*, 24(5) and 157-161. 2019.
- [6] Jung Ik Joo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Self-esteem in Adolescence. *Korean Youth Study*, 18 (3), 127-166. 2007.
- [7] Twenge, J. M., & Campbell, W. K. Age and birth cohort differences in self-esteem: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4), 321-344. 2001.
- [8]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 Robins, R. W.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05. 2003.
- [9] Picou, J. S., & Carter, T. M. Significant other influence and aspirations. *Sociology of Education*, 49, 12-22. 1976.
- [10] Dubois, D. L., Bull, C. A., Sherman, M. D., & Roberts, M. Self-esteem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A social-contextual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5), 557-583. 1998.
- [11] Lokes, N., Gingaras, I., Philppe, F. L., Koestner, R., & Fang, J. Parental autonomy-support, intrinsic life goals,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in China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8), 858-869. 2010.
- [12] Bang Dami.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nd Self-respect and School Life Adaptation*. A Master's Degree thesis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5.
- [13] Cho Hyun-chul. Analysis of the self-concept structure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multi-faceted, hierarchical models. *Journal of the Children's Association*, 21(2), 99-118. 2000.
- [14] Baker, R. W., &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 1984.
- [15] Ahn Do-hee & Kim Yu-ri.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lationships,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eenagers. *pedagogical studies*, 52(1), 1-25. 2014.
- [16] Boumeister, R. R., & Vohs, K. D.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17] Colby, A., & Damon, W. *Some do care: Contemporary lives of moral commitment*. New York: Free Press. 1992.
- [18] McAdams.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2), 100-122. 2002.
- [19] Mitchell, D. K., Adams, S. K., & Murdock, K. K. Associations Among Risk Factors, Individual Resources, and Indices of School-Related Asthma Morbidity in Urban, School-Aged Children: A Pilot Study. *Journal of school health*, 75(10), 375-383. 2005.
- [20] Kim Ji-young & Lee Hyung-sil. The effect of family and peer factors on self-respect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mily and Education*, 22(1), 21-32. 2010.

Authors



Chiwon Choi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2019. He is under the Ph.D course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ame Addiction and Social Survey Method etc.



Hyung-hee Kim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2019. She is under the Ph.D. course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he is currently working at a

facility for the disabled. S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olicies, Community Social Welfare, Youth Welfare and Disabled Welfare, etc



Hwieseo Park received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3. Hwieseo Park is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urvey method etc.